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5.10.13

[중국/홍콩]
박수진
soojin.park.a@miraeasset.com

보이는 차이나

다시 정치의 시간: 4중전회와 정책 모멘텀 점검

- 4월 관세 충돌 이후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며 긴장이 고조됐으나, 양국 모두 충돌 수위를 조절하며 갈등과 완화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4중전회를 앞두고 정치적 결속과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외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해석
- 이번 4중전회에서 논의될 15.5규획의 핵심은 인공지능·반도체·로봇·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관련 분야의 성장 모멘텀과 중장기 투자 유효

지난 4월 이후 완화됐던 미·중 갈등이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0월 9일 희토류 등 전략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맞서 미국은 100% 고율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재점화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첨단기술 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략 자원을 통한 협상력 확보와 기술 안보 강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의 필수 소재로, 중국은 이를 활용해 공급망 내 주도권을 재확인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금지가 아닌 허가제 기반의 합리적 관리로, 군사적 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면적 봉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은 대립이 아닌 대화를 원하며,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교적 유연성을 드러냈다. 반면 미국은 초기에는 강경한 대응 기조를 취했지만, 이후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공급망 리스크를 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톤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우려했던 극단적 충돌 가능성은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결국 이번 대응은 10월 20~23일 열릴 제20기 4중전회를 앞두고, 외부 압력을 내부 결속으로 전환하고 기술 자립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재확인하려는 정치·경제적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 제재 국면에서 이어져 온 '위기 속 자립'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중국이 자원·기술·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에게 2025년의 의미: 정치·산업 구조 전환이 교차하는 전략적 분기점

특히 2025년은 시진핑 3기 체제의 중반기로, 2027년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통치 정당성과 정치적 권위를 재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3연임 이후 3중전회가 약 1년 이상 연기되며 경제·정치 의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4중전회는 사실상 5중전회의 기능까지 아우르는 '확장형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번 4중전회는 정책적 중간 결산이자 향후 5년의 전략 방향을 동시에 확정하는 분기점으로, 그 상징성과 정책적 밀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해석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2015년 제시된 「중국제조 2025」 이후 10년이 되는 해로, 산업 고도화·기술 자립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품질생산력(新质生产力)으로 불리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산업적으로는 AI, 반도체, 로봇, 신에너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주도형 경제 체제' 구축의 출발선이자,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플러스 전략·과학기술 강국 로드맵이 본격화되는 해로 평가된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이하 15.5규획)의 구체적 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규획은 단순한 거시경제 계획을 넘어 '신품질생산력(新质生产力)'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제도화하는 청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품질생산력은 기존의 인력·설비 중심 생산력이 아닌 AI·데이터·혁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생산 효율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하며, 기술 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저공경제 등 첨단 산업 전반의 육성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추진 중인 '인공지능 플러스 전략', 국산 GPU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확대 등의 정책과 맞물려, 향후 중국 산업정책의 핵심 축이 첨단 기술·디지털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중 갈등보다 중국의 정치 이벤트에 주목

미·중 갈등은 향후에도 '갈등–대화–완화'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4월 관세 충돌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장에 반영되었고 이번에도 양국 모두 더 극한의 갈등으로 가지 않기 위한 대화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번 국면이 다시 4월과 같은 급락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중국 투자의 관심은 미·중 관계의 단기 변동보다 정치 이벤트와 정책 방향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분쟁 대응 부담 등 복합적인 대내외 불안 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적인 대외 충돌이 자국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중국 또한 경제 회복세 둔화, 부동산 부진, 청년실업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확대와 신품질생산력(新质生产力)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 채널을 열어둔 채 긴장 완화와 실리적 대응을 병행하는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 입장에서는 단기 리스크보다는 정책 방향성과 첨단산업 육성의 구조적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관련 핵심 산업군은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중국 테크 섹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의제별 역할

구분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1중전회	당 내부 새 지도부 구성	인사
2중전회	국가 지도자 추천	정부 인선
3중전회	경제 개혁·발전 전략	경제정책
4중전회	정치·법치·당 강화	제도개혁
5중전회	차기 5개년 계획 확정	발전계획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타임라인 (2022~2025)

구분	개최 시기	주요 의제	주요 내용
1중전회	2022.10.23 (제20차 당대회 직후)	새 중앙지도부 구성 (총서기·정치국·상무위원 선출)	시진핑 3기 체제 공식 출범. 당 내부의 최고 권력 구조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확정
2중전회	2023.2.26~28	헌법 개정 및 정부 인사안 확정 → 전인대 제출	국가지도부 (주석, 총리 등) 인사안 심의 확정
3중전회	2024.7.15~18	중국식 현대화 제도 정비 및 개혁 심화	원래는 2023년 하반기 개최 예상이었으나 약 6~8개월 지연. '경제 개혁'보다 '정치·제도적 개혁' 비중 강화
4중전회	2025.10.20~23 (예정)	'15.5규획(2026~2030)' 기본 방향 + 국가 통치체계 논의	정치+경제 전략 병합형. 15.5규획 초안 논의 중심.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중국 5개년 규획의 핵심 정책 키워드 및 주요 육성 산업 (2001~2030)

	10 차 (2001~2005)	11 차 (2006~2010)	12 차 (2011~2015)	13 차 (2016~2020)	14 차 (2021~2025)	15 차 (예정) (2026~2030)
정책 키워드	과학발전관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보화&산업화	사회주의 금융위기 극복 샤오캉사회 신농촌 건설	일대일로 도시화 추진 제조업 고도화 * 중국제조2025 등장	소비 중심 성장, 산업혁신, 공급구조 재편	쌍순환, 디지털 발전 디지털 중국 건설 녹색경제 전환	[예상] 신품질생산력 중국식 현대화 첨단기술 자립 인공지능 플러스
주요 육성 산업	데이터 전송장비, 중대장비 제조 반도체, 고속통신망,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무선통신, 바이오, 차량용 전장품	에너지 절감기술, 반도체, 사물인터넷, 바이오테크, 청정에너지차, 신소재	에너지 저장기술, 반도체, 5G, 바이오/유전자, 신에너지차	인공지능, 양자정보, 반도체, 바이오, 신에너지 등	[예상]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저공경제, 우주 항공 등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